## 신당 후보 3인 진영서 본 광주·전남 경선 판세·전략

# "孫風 불것" "鄭 대세론" "李 역전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광주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9개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3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29일 광주·전남경선을 앞두고 있는 세 후보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 게재 순서는 기호순.

### 孫 광주 경선 지휘역 김동철 의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고려, 결국 손학규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손학규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다가 선거대책본부 해체 이후 사실상 광주지역 경선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광산구)은 "경선 초반 4연전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에 뒤졌지만 이는 조직선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손 후보 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경선 판세에 대해 김 의원은 "광주에서는 상당한 표 차이로 정 후보를 제칠 것이며 전남에서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광주·전남의 선택은 추후 경선 가도에 '손풍'으로 나타나면서 경선 승리는 물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잠적은 동원선거 강력 항의 표시 호남민이 진정성 평가해 줄 것"

잠적 파동이 지역 조직과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의원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동원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 후보 측의 조직선거는 감동보다는 오히려 경선의 흥행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 후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홀홀단신 다시 경선에 복귀한 이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추석 민심이 손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후보는 인위적인 조직선거를 거부하고 진정성 하나만을 들고 광주·전남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며 "높은 정치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이 그의 진정성을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탁월한 정치적 선택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옳은 방향으로 주도해왔다"며 "이번 경선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서 정권재창출을 실현시킬 주자는 손 후보라는 점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鄭 캠프 광주 선대본부장 양형일 의원

"정동영 후보는 광주·전남의 정치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민주·개혁·평화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주자라는 점에서 승리를 자신합니다."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과 광주지역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현재 판세는 정 후보가 45%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손 후보가 25% 정도, 이 후보가 17~18%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그래도 정 후보 밖에 없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만큼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정 후보가 2위 후보에 비해 많게는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 "鄭후보만이 DJ·盧 지지세력 결집 45% 지지로 2위와 더블 스코어"

정 후보의 '본선 회의론'과 관련, 양 의원은 "민주세력의 정통성을 승계한 정 후보만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며 "정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의 대승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후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민주세력을 재결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 판 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정 후보만큼 호남에 대해 고민한 주자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 후보는 호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경쟁 후보들에 대해 양 의원은 "손 후보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는데다 민주·개혁 세력을 결집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이 후보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독선적 이미지가 강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양 의원은 "정 후보는 호남의 정체성과 민주·개혁세력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자"라며 "정 후보의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경영 정책은 한반도 운하 등 토목공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李 캠프 전남본부장 서갑원 의원

"손학규 후보의 잠적 파동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해찬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곧 표심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해찬 후보 캠프에서 전남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순천)은 광주·전남지역 경선 판세에 대해 "이해찬 후보가 정동영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선거인단을 10으로 보면 정 후보가 4, 이 후보가 3.5, 손 후보가 2.5 정도를 점하고 있으나 막판 이 후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손 후보는 '잠적 파동'이라는 자살골로 조직 기반이 흔들리는 등 경선 승리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경선 구도는 조직력의 정 후보와 막판 바람을 타고 있는 이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손 후보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승계하는 정통성 있고 뚝심 있는 이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 "조직선거 행태 부정적 인식 확산 李 막판 바람이 鄭 조직력 누를 것"

그는 "정 후보 측의 조직선거 행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결국 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충청 출신인 이 후보가 광주·전남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호남과 충청 민심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민주세력의 결집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강력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자는 이 후보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5선의 국회의원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후보는 능력에서나 도덕적 측면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주자"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의 선택! 희망2007 ■ 신당 후보별 지방분권 정책

## 손학규 "수도권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손학규 후보는 강력한 지방자치 실천 의지 차원에서 지방분권헌장을 선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분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어 정권 초기에 재정분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후보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평가한 뒤 "한 부처로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에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담당수석을 두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전제한 뒤 "미군기지 반환토지 등을 기업에 장기 임대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은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에 대해서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선 재정분권, 후 사무이관방식으로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 '다른 대안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이라고 답변했다.

## 정동영 "중앙권한 이양 신중 검토"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정책 지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전략산업 정책의 유지 발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역산업진흥,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국가균형원 설치 △대통령 비서실 자치수석 신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초광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국회 상원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해 "지방정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뒤 "지자체와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정부조직 축소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국가균형원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해찬 "분권 균형발전부 설치"

이해찬 후보는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 청와대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수석비서관', 정부 안에 '지방분권균형발전부'를 각각 설치하겠다며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후보는 "과거 정부에 비해 노력했으나 중앙부처의 저항과 정치권의 정략적 대응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촉진 로드맵을 기필코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국고보조금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인상, 국세와 지방세 재정비 등) △자치입법역량(자치 입법권·조직권·행정권 확대) 강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권한 재조정 등을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역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폐지', 국회 상원제 도입은 '신중검토'라고 응답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 산행안내

**9월 29일(토)**

▲무등토요산악회 경남 밀양 가사산 9월29일(토) 06시30분 시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mudemg1028 T.010 9942 8000

▲광주토요산악회 장수 장안산 9월29일(토)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 608 4267, 011 634-2044

▲광주메아리산악회 산청 웅석산 용소골 무박2일산행 및 한선굴 대금굴관광 9월29일(토) 21시 시청앞 출발 http://cafe.daum.net/mlayw T.011-601-2894

**9월 30일(일)**

▲요산회 충북 괴산 칠보산 9월30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광주산가족 합양 삼봉산, 금대산 9월30일(일) 08시 대인광장(삼성홈플러스경유) 출발 T.019-499-1405, 011-9608-3357

▲광주지인보존산악회 악산 삼분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cafe.daum.net/JATNSAN T.011-666-3291

▲나사모산우회 호남정맥(노적재~매남) 9월30일(일) 07시30분 염주체육관정문(광주역,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nasamo T.062-266-7223, 011-621-7201

▲무등산악회 운천 오봉산 9월30일(일) 06시30분 봉태백화점정문(누암동은행원경유)출발 T.011-602-6278

▲호남산악회 서울 도봉산 9월30일(일) 06시20분 전원동해태마트 (광주역광장,문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호남산악회 T.010 6246 7231, 011 605-5034

▲광주산우회 고흥 금산 적대봉 9월30일(일) 07시30분 염주체육관(대인광장,홈플러스경유)출발 T.365 3612, 011 619-3612

▲광주새무등산악회 군산시 고군산도 선시도 대각산 월영봉 9월30일(일) 08시 대인광장 출발 T.011 609 8633, 011 616 6300

▲광주산길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9월30일(일) 08시30분 문예회관후문 출발 T.011-644-8260

▲한울산악회 남남정맥(해2구간) 9월30일(일) 07시30분 수세호텔건너편 광주은행앞(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해여비카페:한울산악회 T.011-645-3371, 011 635 9329

**10월 1일(월)**

▲광주명문산악회 경북 상주시 속리산 묘봉 10월1일(월)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cafe.daum.net/ppoppo555 T.011-602-3709, 011-633-9248

**10월 2일(화)**

▲염주산악회 합양 삼봉산,금대산 10월2일(화) 08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신청순해야점수 T.011 608-2208

▲광주뉴너덜산악회 당항 한산섬 망산 10월2일(화)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T.010 7713 9921

▲팔성산악회 마령산 다리성봉 10월2일(화) 07시40분 풍암중학교(백운로 다리,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다음카페:팔성산악회 T.011-605-3477

**10월 3일(수)**

▲청록산악회 전북 운장산 연석산 10월3일(수) 08시 과월공제회관 출발 T.011-6660-5665

**10월 4일(목)**

▲광주목요산악회 경남 함천군 대병면 악건산 10월4(목) 08시 광주역앞 출발 T.011-9601-8258, 011-441-8845

**10월 6일(토)**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충악산 대청봉 무박2일산행 10월6일(토) 21시 전대병원응급실건너(지하철3번출구)편(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20-2002

▲대한산악연맹 광주알파연금 법 선악산 무박2일산행 10월6일(토) 21시 문예회관후문 출발 http://cafe.daum.net/dwhiteiger T.010-9445-9844

▲광주토요산악회 서울 북한산 10월6일(토) 06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남평산악회 설악산 대청봉 공룡능선 비선대 무박2일산행 10월6일(토) 21시 대인광장신평화관앞출발 T.016-668-2468

**10월 7일(일)**

▲광주한마음산악회 91차 지리산 황금능선 구례산 갈대산행 10월7일(일) 07시30분 광주역광장(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T.010-7172-5899

▲빛고을외오름회 강원도 오대산 10월7일(일) 04시40분 염주체육관(광주역,동광주홈플러스경유)출발 T.011 609 7159, 010 6601 9774

▲요산회 지리산 천왕봉 10월7일(일) 07시30분 광주역 출발 T.016 611 1509

▲광주보라미산악회 강원도 오대산 노인봉 10월7일(일) 05시30분 광주역 출발 ※다음카페:광주보라미산악회 T.011 645-7796

▲광주우보회 안양(군포,안산) 슬기봉~수리봉~수암봉 10월7일(일) 07시 대인광장(염주체육관06:30,문예회관경유)출발 T.011-9600-5364, 019-656-9498

**10월 12일(금)**

▲광주철도산악회 금강산 단풍열차운행(무박3일)250,000원, 오대산 수금강 단풍열차(무박3일) 70,000원(10월12일 금요일 19시 광주역출발) T.515-7788

**10월 13일(토)**

▲광주한길산악회 충북 가지도 녹전산 10월13~14일(토,일) 한라산 10월27일~28일(토,일) http://cafe.empas.com/hangil T.222-3253, 010-7619 0559

**10월 14일(일)**

▲삼각산악회 경남 삼천포 와룡산(삼천포 자장면 회제공함) 10월14일(일) 07시염주시장(양동시장,광주역경유) 08시 88테니스장앞 출발 T.017 601-7633

---

**(주)홈컨부동산 리서지**

T.(062)385-9994, 233-2222 상무지구 주택공사옆

一生 최대의 쇼핑! 당사는 名品을 취급합니다.

당사는 광주 전역을 손금 보듯이 봅니다.

당사는 미시적 거시적 부동산 흐름을 통합니다.

당사는 광주 전역을 매물로 가정합니다.

당사는 5억원이상만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정밀한 법인업무 등에도 꼭 맞습니다.

당사는 광주 또는 상무지구로 통하는 목입니다.

당사는 열정적이고 정돈된 인재만 확보합니다.

부동산 어드바이저 박길수

당사 대표 주요 경력
- 전남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삼성그룹 기업법무 약 10년
  - 해외합작계약, M&A계약
  - 사업성분석, 기업상장, IR업무 등
- (주)갤러리존 운영법인 대표(사내)
- (주)다승인터내셔널 대표(무역)
- (주)사랑방산문사 부서장
- [부동산업 실무 교본] 저자
- 주요 방송사 정보제공 및 언론사 부동산재테크 칼럼 기고 中

※ 외국기업 등 원어(영어)상담 가능

전화 한통화로, 이미 한발 앞서갑니다.

네이버에서 홈컨부동산 을 치세요(www.homecon.co.kr)

---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목장,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서구 서창동 주거지역800평 1300평 당79만 지제물류창고최적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420평 당80만 건축허가득 수완지구인접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550평 당80만 평동공단옆 물류창고최적 건축허가득
▶북구 용전동 자연녹지 1500평 당100만 분할가 건축허가득 2차선도로접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400평 당80만 하남공단인접 건축허가득 차제물류창고최적
▶광산구 신정동 생산녹지980평 당50만 도로접 기도원복지시설최적
▶화순읍 춘양면 전 200평 평당 4만5천 관리지역 묘지적합 2차선도로접 있음
▶남구 압촌동 대지330평 당55만 전원주택최적
▶서구 용두동 전 2100평 당30만 2차선도로접 투자최적
▶남평 수원리 전2500평 대지포함 주거지역 도로접 당45만
▶광산구 복산동 답 1,200평 당11만 농노접
▶광산구 오운동 답 1,800평 당8만
▶동구 선교동 대지 150평 당130만 2차선접
▶동구 망월동 임야 5,400평 당6만 2차선근처, 투자최적
▶동구 소태동 자연녹지 310평 당70만 도로접, 전원주택, 물류창고 최적
▶광산구 양산동 답 1,000평 당16만 관리지역 2차선접
▶광산구 도덕동 임야 1,200평 주거지역 당18만
▶화순읍 다지리 대지80평 답100평 매매가 7,800만
▶담양 창평 광덕리 2,300평 관리지역 대지포함 당9만 2차선접

화순읍 근교 전원주택지 다량 보유

---

**변비·비만**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의 물질 발견!!

가장 쉽고 빠르며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

◉시판기념 특별 할인◉

15일분 ₩58,000

(배송료 무료)

• 입금계좌 (농)641076-51-025857(김헌영) •

070-7012-0246, 017-291-3115

**전지영전원**

- 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

www.cjyc.co.kr